

**당**이 낮은데도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 2형 당뇨병 30년 차인 이준석 (82세)씨는 얼마 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다.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닥친 저혈당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한 것이다. 다행히 등산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다.

이 씨는 “병원 당뇨교육실에서 저혈당에 관해 많이 배웠다”며 “그래서 항상 저혈당에 대비해 주머니에 사탕을 항상 넣고 다녔는데, 생각지 못하게 저혈당이 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저혈당 증상을 못 느껴 적절히 대처하지도 못한 채 긴박한 순간을 경험하는 당뇨병환자들이 적지 않다. 이준석 씨가 경험한 것은 ‘저혈당 무감지증’으로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저혈당 무감지증에 의해 저혈당에 대처하지 못하면 환자는 심한 저혈당으로 경련 및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저혈당은 대개 혈당이 55~60mg/dl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데, 저혈당 상태가 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저혈당으로 인한 증상은 크게 자율신경계 증상과 신경당 결핍증상으로 구분되어진다.

자율신경계 증상은 일반적으로 저혈당일 때 느끼는 증상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한, 빈맥, 공복감, 불안감, 초조감, 떨림, 심장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뛰는 등이다. 반대로 신경당 결핍증상은 뇌세포가 필요한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초기에 피로감, 짜증스러움이 나타나며, 더 진행하면 두통, 졸림, 복시, 일시적인 감각 및 운동실조, 경련, 의식소실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다.

보통 저혈당이 나타나면 초기에 자율신경계 증상을 느껴야 하지만 저혈당 무감지증에 걸리면 이런 증상 없이 바로 신경당 결핍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환자는 초기 저혈당 증상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의식변화가 발생해 응급상황에 놓이게 된다.

저혈당 무감지증은 자율신경계 장애나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에 의해 생긴다.

유병 기간이 25~30년 된 당뇨병환자는 50%에서 저혈당 무감지증을 경험하며 대체로 인슐린으로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제 1형 당뇨병환자,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당뇨병환자,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당뇨병환자, 노인 당뇨병환자, 반복적인 심한 저혈당을 경험한 당뇨병환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잘 숙지하도록 한다.

- 1) 혈당측정을 자주 한다. 특히 음주 전, 운전하기 전, 운동 전에 반드시 혈당을 측정한다.
- 2) 중증 저혈당의 경험이 있는 경우 공복혈당 조절 목표를 90~140mg/dL로 다소 높게 세운다.
- 3) 식사, 운동, 인슐린 및 약물 투여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한다. >